

2022년 정간사 회의록 (1월)

일 시	2022년 1월 21일(금) 22:00 - 23:30		장 소	인천 영종도 게스트하우스			
참석자	김경옥 <i>김경옥</i>	김만호 <i>김만호</i>	김상태 <i>김상태</i>	김진철 <i>김진철</i>	박현수 <i>박현수</i>	방홍동 <i>방홍동</i>	신인호 <i>신인호</i>
	이거랑 <i>이거랑</i>	이상찬 <i>이상찬</i>	장주인 <i>장주인</i>	전경자 <i>전경자</i>	조숙형 <i>조숙형</i>	최남우 <i>최남우</i>	

안건 1. 비전연구소의 개명 및 역할 규명 건

1. 개명 및 역할 수정 요청 배경

- 가. 2018년부터 시작된 비전2020소위원회의 연구 결과 중 핵심적인 내용인 '2020선언'에 대하여 정간사회에서는 선교회의 공식적인 비전선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결의함에 따라, 포스트 비전2020 후속 연구를 위해 발족한 비전연구소의 역할과 성격이 모호해짐.
- 나. 비전2020 전략연구보고서(2001), 간사수련회 중간 점검보고서(2012), 비전위원회 최종보고서(2013)를 통해 교사선교회가 설립하고자 했던 연구소의 성격은 교사선교회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을 포괄하는 연구와 학교 설립에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다. 따라서 현재 발족한 비전연구소의 명칭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교사선교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함.

2. 비전연구소 개명에 대한 논의

- 가. 비전소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후속 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현재 교사선교회의 필요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함.
- 나. 비전연구에 대한 역할보다 선교회의 사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향, 전략 등을 연구하여 대표간사에 제안하고 본부 또는 정간사회에서 사역의 방향이나 비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런 측면에서 비전연구소라는 이름보다는 교사선교회(TEM)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제안함.
- 다. 개명하는 것은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하며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름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향후 연구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명확한

역할 규명과 함께 개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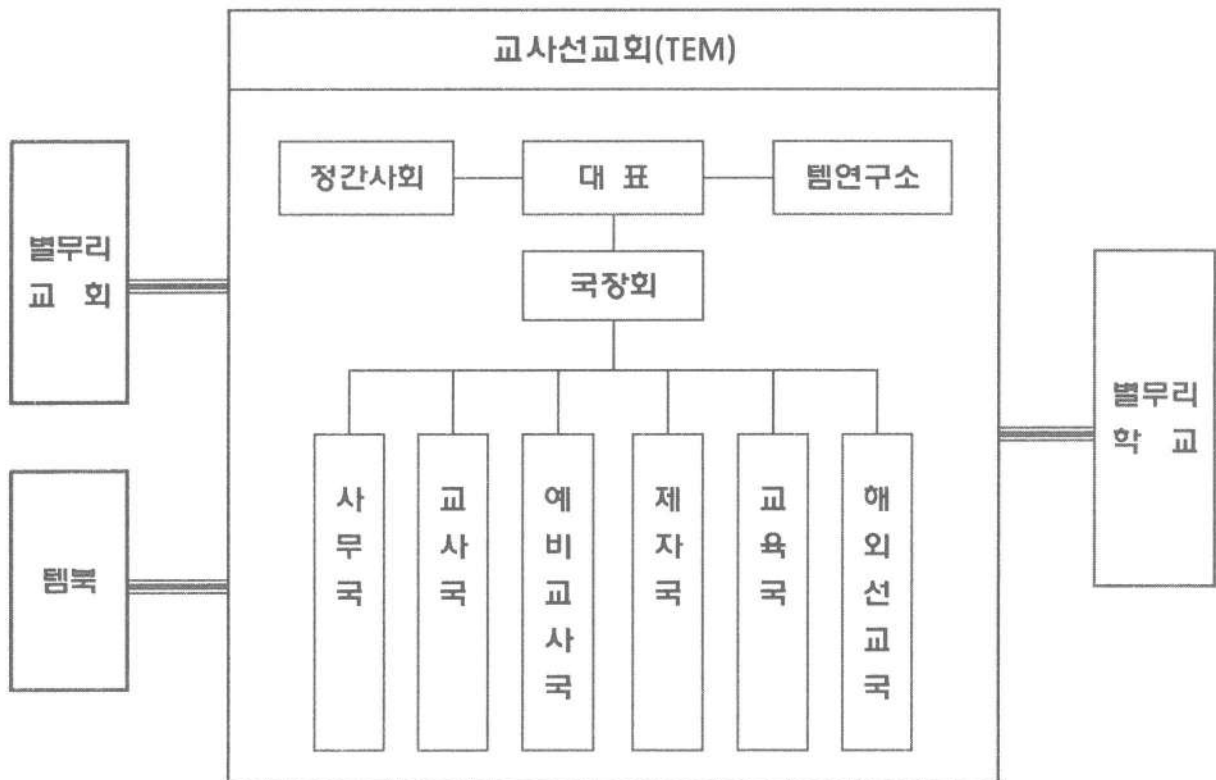
(결정 사항) 연구소의 이름을 '비전연구소'에서 '템연구소'로 바꾸기로 함.

3. 템연구소의 역할 규명에 대한 논의

< 템연구소의 역할 규명을 위한 질문들 >

기 준	질 문
기독성	· 연구소의 정체성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독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이 기독성을 담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가 치 지향성	· 교사선교회의 사명 선언과 비전 선언 등의 가치를 연구하여 공동체 내에서 가치 가 깊은 차원에서 공유되도록 연구하고 있는가?
현장성	· 연구소는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사역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현장을 연구하고 있는가?
공공성	· 연구소는 교사선교회 내부뿐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추구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가?

가. 템연구소의 위치(포지션)는 대표 간사의 직할 기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나. 템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멤버십 책자에 반영하여 회원들이 연구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 향후 연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정간사회에서도 3~4명 정도 정하여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내용 등이 선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대표간사는 당연직)
- 라. 다양한 연구 과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대표간사 또는 정간사회의 요청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물론, 연구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대표간사에게 건의할 수 있음.)
- 마.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기간을 명시화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리서치 및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사역팀 또는 지역별 사역을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월드비전의 'CO' 역할¹⁾)을 감당하면 좋겠음.

안건 2. 박현수 간사님 가정 파송 건

(제안 배경)

- 가. 대안대학교 설립을 준비하며 오래 전 파송을 소망하던 제주로 이사하게 됨.
- 나. 제주의 여러 교사들로부터 만남과 모임 요청이 있음.
- 다. 대안대학교 설립뿐 아니라 제주의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양육하며 그들을 기독교사로의 소명을 일깨우는 사역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
- 라. 제주별무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추후 공식적인 파송의 시간 필요.

(결정 사항)

2022년에 제주도에 교사선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교사 모임이 생긴다면, 2023년 겨울수련회 때 박현수 간사님 가정을 파송하기로 함.

1) 전경자 간사의 설명

안건 3. 책임사역자 양육 건

(제안 배경)

- 가. 지역 책임사역자 중 교사선교회에서 양육을 짧게 경험한 후 사역을 하고 있어 양육이 필요한 간사님이 있음.
- 나. 가정과 학교, 교회, 교사선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탈진이나 우울증 등으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사역자들이 있음.

(결정 사항)

양육 희망자를 조사해서 양육이 필요한 간사님을 정간사 또는 무장 과정 수료자 중에서 리더로 세워 섬기기로 함.